

광주시 3대 대북 교류사업 성사되나

북한예술단 초청 공연·에너지 자립섬·양궁선수단 교류

통일부 매개 남북교류협의회-北 민화협 '의미있는 소통'

“전쟁없는 평화체제 구축, 광주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을 닦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튿날인 26일 윤정현 광주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과 한반도기 하강식에서는 특별메시지를 통해 “올림픽을 계기로 전쟁위기를 떨쳐내고 화합과 연대, 평화의 싹을 피웠다”며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평화의 축제로 만들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소통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가 내내 세계수영대회와 맞물려 아심차게 추진중인 3대 대북 교류사업이 구체적으로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창에서 광주로” 5월에서 통일로 가는 기조 아래 광주시가 추진중인 대북교류사업은 문화, 체육, 민간지원 등 크게 세 부류다.

우선, 문화의 경우 세계 5대 비엔

날레로 꼽히는 광주비엔날레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북한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을 갖거나 북한 미술품 또는 공예품을 전시하는 특별이벤트 등이 추진중이다. 윤 시장은 최근 동구 구민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북한공연단의 문화전당 공연 추진을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올림픽 뒤끝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내년 7월2일부터 31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광주의 국제적 인프라를 이용한 양궁선수단 공동 훈련 등의 인적 교류가 심도있는 진행중이다.

또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북한 내 에너지 자립마을 건설사업 등이 불발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상은 통일부를 매개로 남측에서는 사단법인 광주시 남북교류협의회, 북측에서는 민중화해협력한국

민협의회(민화협)가 협상 파트너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조지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IT팀도 꾸렸다.

지난 2004년부터 적립해온 남북교류기금이 총자본으로 쓰일 예정이다. 남북기금은 현재 44억원에 이르며, 초창기에 연간 5억~7억원 가량 모였으나 이후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연간 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광주발(發) 대북교류는 윤 시장이 상임대표를 맡았던 광주·전남 남북교류협력협의회와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진행해오다 2008년 평양 청국장공장 건립사업 이후 10년 간 중단된 상태. 인도적 교류도 금강산 인민병원에서 이뤄진 안과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끝으로 사실상 끊긴 상태다.

윤 시장은 26일 “수년 전 고려민항 전세기를 타고 ‘광주 출발, 평양 도착’ ‘평양 출발, 광주 도착’이라



윤정현(왼쪽)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광주시청사 국기대 앞에서 열린 한반도기 하강식에 참석, 한반도기와 평창동계올림픽기를 조영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과 함께 하강하고 있다.

고 쓰여진 운환판을 봤을 때의 붕클함은 아직도 있을 수 없다”며 “통일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미있는 소통들이 이뤄지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위기 독거가구에 생일잔치 열어준다

최근 늘어나는 독거가구와 이로 인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 동구가 3월부터 위기 독거가구를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너드립 행복한 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거동 불편 등 위기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독거노인 및 중장년 독거남 중 복지공동체위원회와 복지통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생일에 해당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일잔치를 열고 생필품, 간식 등의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주빛고을복지관, 13개동 주민복지공동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2년 연속 공모 선정

광주 서구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18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는 지난 2007년부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전국공공도서관 중 100여개의 도서관을 선정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도서와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서구 드림스타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다양한 독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남구, 공직 비리 사전 차단...예방강도 높인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 감사팀은 이달 초부터 구청 각 실·과·소 및 보건소 등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한해 집행된 일상경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출이 이뤄졌는지의 여부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다음 달 19일부터 4월 말까지 관내 8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하반기인 9월에는 옥외광고물 및 공용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광주 북구가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북구는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기업사랑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2018 뉴 기업사랑 948지원’을 함께 기획을 마친,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뉴 기업사랑 948’은 ▲협업중심 기업소속 강화 ▲중소기업 기술·경영활동 지원 ▲기업체 근로자 복지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업 육성 등 9대 분야 48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북구는 총 사업비 15억 1천여만 원을 투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분야별 11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 동지시협 신입생 응원 활발

새 학기를 맞아 마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활동이 광산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시협’)를 중심으로 활발하다.

하남동 지시협(위원장 김장호)은 지난 23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10명에게 화음품을 전달했다. 화음품은 크레파스, 도화지, 연필깎이 등 새롭게 초등학교가 된 아이들이 자주 찾는 문구류로 구성했다.

신흥동 지시협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7명에게 교복비 총 280만 원을 27일 지원한다. 지시협 위원들은 현장 활동 중 신입생 교복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음을 파악하고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

송정2동 지시협도 같은 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마을 청소년 8명에게 교복비 160만 원을 지원한다.

임형택 기자

‘전두환 회고록’ 2번째 소송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진실 밝히나

5·18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두 번째 출판·배포금지 소송이 수십 년간 이어온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진실 공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광주지법에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2차 소송의 최종 심문 기일은 지난 1월31일 마무리됐다.

앞서 5·18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485페이지)’,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군 습격(518페이지)’,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403페이지)’, ‘시민군의 파출소 습격 및 방화(391페이지)’ 등 5·18 역사 왜곡을 이유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다.

최종 심문 기일 이후 한 달 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다. ‘광주

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습격 사건은 사실이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최근에는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전두환에게 유죄를 확정판 내법원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해 ‘광주 시민군이 교도소를 총 5회에 걸쳐 공격했다’고 판결한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3공수여단 11대 대령이 1980년 5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시위대로부터 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아 무장시위대에 응시했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국가 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계엄군의 광주교도소 방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사실상 광주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김정호(45·사법연수원 33



기) 민 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21일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근 신군부의 조직적인 5·18 왜곡과 조작 사실을 밝혀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군이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는 전남경찰청의 공식보고서 등을 담았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계엄군의 전부상부가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1997년 당시에는 이 같은 사실을 대법원이 몰랐기 때문에 마치 교도소 습격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판결문에 10줄이 적시돼 있다”며 “이를 반박했지만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가정문제, 효과적 해결 방안 모색’



신임 고영구(60·사법연수원 20기) 광주가정법원장은 26일 “학대받는 아동과 같은 가정 내 약자, 해체될 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등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가정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와 소년사건은 단순히 송사에 대한 판단 기능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후견적 역할과 복지적 기능까지 가정법원이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본연의 사명이자 중요한 업무는 바로 재판이다. 재판이 아발로 법원의 신뢰에 대한 출발점이다”며 “지금은 양보다 질적으로 좋은 재판을 해야 할 때이다. 좋은 재판은 개별 사건에 맞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질적 해결 중심의 재판이다”고 강조했다.

이윤규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여
- 기업 진단
- 기장 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